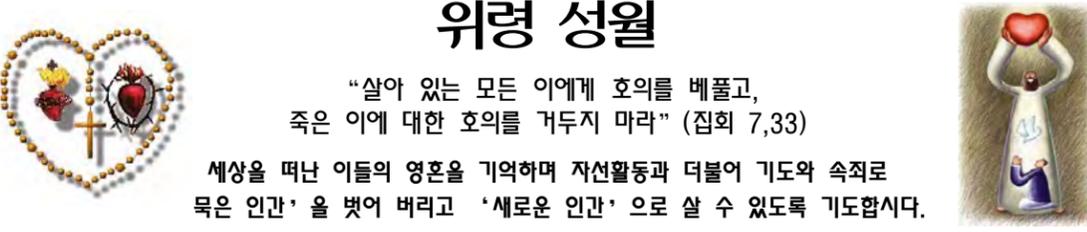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위령 성월

“살아 있는 모든 이에게 호의를 베풀고,
죽은 이에 대한 호의를 거두지 마라” (집회 7,33)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며 자선활동과 더불어 기도와 속죄로
묵은 인간' 을 벗어 버리고 '새로운 인간' 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1월 기도지향

- 안병환(발렌티노), 안현숙(크리스티나) 가정
-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가정

위령성월

교회는 해마다 11월 2일에 기념하는 '위령의 날'과 연관하여 11월 한 달을 '위령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위령 성월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특별히 기억하며 기도하는 달입니다. 이 위령 성월에 신자들은 세상을 떠난가족이나 친지들의 영혼은 물론 죽은 모든 이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 시기에 특히 연옥에서 단련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많이 기도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1월17일(토) 오후 5시
- 장소 : KU 성 로렌스 성당

평신도 주일

다음 주일(11/18)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인 평신도로서 우리가 받은 은총과 사명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추수 감사절'을 미리 기념하며 점심식사와 막걸리, 김치전을 나누려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전입 환영

- 권중기 (요사팻), 강신순(켈로니아) 가정
10030 w. 116th st. Overland Park, KS 66210
- 남기하(마르티노) 형제님
4001 w. 105th st. Overland Park, KS 66207

한 주간 공동체 소식

- 지난 11/7(수) 오후 3시, 캔사스교구 총대리 신부님이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셨습니다. 본당의 현황과 특히 성사 대장을 열람하고 가셨습니다.
- 오늘, 미주한인체육대회 기금마련 '일일식당'이 있습니다.
- 다음 주일, 구역분과 기금마련(주방비품교체) 떡국떡과 절편을 판매합니다.
- 성당의 주방집기(특히 국대접)를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리턴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1	512	170, 161	445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이번주일	문석찬(요 셉)	홍순익(마르티노)
	문호진(안토니오)	김준영(요 셉)
다음주일	정준구(파비아노)	안동현(프란치스코)
	정병훈(보니파시오)	안지영(카타리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대봉사	제2독서
이번주일	최은미(아 네 스)	류기범(요 셉)
	김주연(세실리아)	류다운(임마누엘)
다음주일	박혜정(카타리나)	차호섭(요 셉)
	김수연(율리안나)	최선운(마 리 아)

애찬 봉사자

이번주일	손정화(이사벨)	윤유나(글라라), 유미영(마리안나)
다음주일	신혜경(마리아)	박혜정(카타리나), 유경애(아네스)

헌금 봉사자

이번주일	신혜경(마 리 아)	박희영(카타리나)
다음주일	김태중(예레미아)	정수환(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 <11월 4일>
- 미사참례 : 94명
- 주일헌금 : \$439
- 교 무 금 : \$1400



미사시간
주 일 : 11: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C: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안동현 프란치스코
C: 913.219.8066
Tonghyun.An@gmail.com

부 회 장 정수한 베드로
C: 913.707.8142
scnn8@hotmail.com

재 무 차호섭 요셉
C: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32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진 것을 모두 하느님께 바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그 헌금은 가난한 과부가 먹고 살아야 하는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느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마저 주님께 바칠 것을 다짐하며 정성을 다해 미사를 봉헌합시다.

성화해설

언양 성당

부산교구,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소재.

경상도 남부지역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것은 1815년 을해박해 이후로 추정되며 언양지역은 그보다 훨씬 뒤로 추정된다. 최양업 신부와 다블뤼 주교가 방문하던 1850년대 말 언양 일대에는 많은 교우촌이 형성되었으나 병인박해로 심한 타격을 입은 후 재건되었다. 1884년 언양읍 공소가 설립되었고 1926년 본당 설립에 이어 1936년 '성당과 사제관'(근대문화유산 제103호)을 완공하였다. 성소의 온상인 언양 성당 뒷산에는 병인박해 순교자 오상선의 묘가 있다.

주호식 파트리치오 신부 | 서울대학교 전산정보실장

제 1 독서 : 1열왕 17,10-16 <과부는 제 밀가루로 작은 빵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가져다주었다.>



내 영 혼 아 주 님 을 찬 양 하 라 알 렐 루 야 - -

○ 주님께서는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고 억울한 사람들을 정의로 판단하시며 굶주린 이에게는 빵을 주시도다. 주님께서는 사로잡힌 이를 풀어 주시도다. ◎

○ 주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열어 주시며 주님께서는 억눌린 이 일으켜 주시며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를 사랑하시도다. 주님께서는 나그네를 지켜 주시도다. ◎

○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길러 주시나 악한 자의 길만은 어지럽게 하시도다. 주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시온아 네 하느님 세세에 계시도다. ◎

제 2 독서 : 히브 9,24-28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 마르 12,38-44<또는 12,41-44> <저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쉐 마

“렘톤 두 님의 의미”



오늘 복음은 율사와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을 대조해 보입니다. 율사는 거짓 신앙인의 표본이고 과부는 참 신앙인의 귀감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율사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에 대해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하고, 자기가 많이 가져야 합니다. 율사는 사람들로 부터 존경받기 위해 처신합니다. 입으로는 하느님을 말하지만, 그 마음은 인간의 욕망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오늘의 과부에게는 받을 존경도, 가진 재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지를 넘어섰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이 은혜롭고 관대하신 분이여, 자기도 은혜롭게 또 관대하게 처신하려 합니다.

하느님은 계시고, 우리의 생애가 끝나면,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정산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느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전부라면, 하느님은 현재 우리의 삶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 하느님은 우리가 죽어, 저승에 가서나 만날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도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느님의 나라를 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의 원천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배워 실천하며 그분의 자녀 되어 삽니다.

가진 것을 모두 헌금함에 넣은 오늘 과부의 이야기를 교회에 헌금 많이 바치라는 뜻으로 왜곡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회당의 헌금수입에 관심을 전혀 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유대교 당국이 성전이나 회당에서 헌금을 강요하는 것을 비판하셨습니다. 사람은 재물을 모아서 자기 힘으로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며 삽니다. 현대인은 그것을 위해 저축도 하고 보험에도 가입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당연한 일

입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자기 미래를 보장하려 들지 않고, 하느님을 생각하며 자기 손안에 있는 것마저 선뜻 내어놓는 관대한 그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관대한 마음에 하느님의 일을 보았습니다.

더 나은 세상과 더 나은 생활 여건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창조하시는 하느님의 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느님이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셨다.”(1,27)고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창의력을 살려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일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그런 노력은 인류와 이웃을 위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만 집착하면, 자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인(小人)이 됩니다. 대의(大義)를 살려 일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노력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이 비난하시는 율사는 자기만 생각하는 소인입니다. 그는 하느님과 인류를 보지 못하고 자기가 누리는 것에만 골몰합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그 여인의 작은 실천에 예수님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읽으셨습니다. 그 여인은 베푸시는 하느님을 따라 그분의 관대하심을 실천하였습니다. 하느님이 관대하셔서 예수님도 관대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빙자하여 사람들로 부터 대우받고 치부(致富)하며 사는 길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가르친다면 인간이 행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인배들이 꿈꾸는 신앙입니다. 하느님을 찾고 배우는 사람은 그런 소인배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하느님은 그런 자유로운 마음 안에 그 자유의 원천으로 살아 계십니다.



● 부산교구 서공석 신부

마중물

대답 없는 무덤

한 사람이 교부 마카리우스를 보러 와서 물었습니다. “교부여, 제게 구원받을 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마카리우스 교부가 말했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죽은 사람들을 마구 욕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은 공동묘지에 가서, 온갖 욕을 퍼붓고 돌들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부에게 그 일에 관해 말했습니다.

교부는 그 사람에게 “그들이 네게 무어라고 말더냐?” 그 사람이 “아무 댕구도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교부는 말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가서 칭찬해 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은 가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사도들, 성자들, 의인들”로 불렀습니다. 그 사람은 교부에게 돌아와서 “제가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부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네게 무어라고 대답하지 않더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교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네가 어떻게 그들을 모욕해도 그들이 응답하지 않았음을 알았고, 네가 어떻게 그들을 칭찬해도 그들이 말하지 않았음을 알았다. 마찬가지로 만일 네가 구원받기 원하면 그와 똑같이 행해야 하며 죽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의 조롱이나 칭찬에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유머 게시판

“누님, 저 왔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다,
그들은 나이도 동갑이고 결혼 후에도 친구처럼 허물없이 말도 트고 지내는 터였다,
하루는, 시골에 있는 시아버지가 대처로 나올 일이 있어서 전화를 걸어 와,
“나다, 애비다.” 했다,
시아버지와 신랑 목소리가 워낙 같았고
신랑이 가끔 장난 전화를 했기에 새댁은 신랑인줄 알았다,
새댁 : 웃기지마!
시아버지 : 애비라니깐~
새댁 : 장난치지 말라니까...
시아버지 : 허~ 그 참, 애비래두~
새댁 : 네가 애비면 난 네 누님이더!
다음날, 시아버지가 시골서 올라오셨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하는 말이,
“누님, 저 왔습니다.”

